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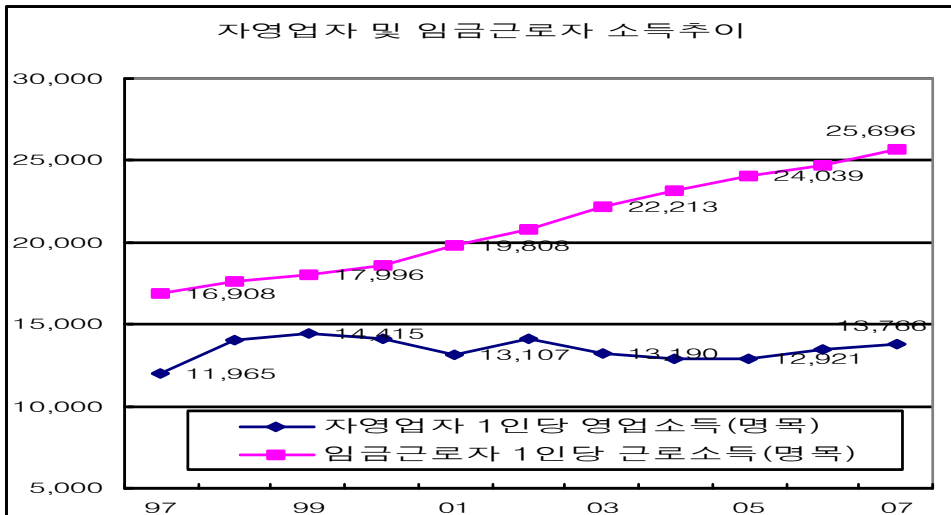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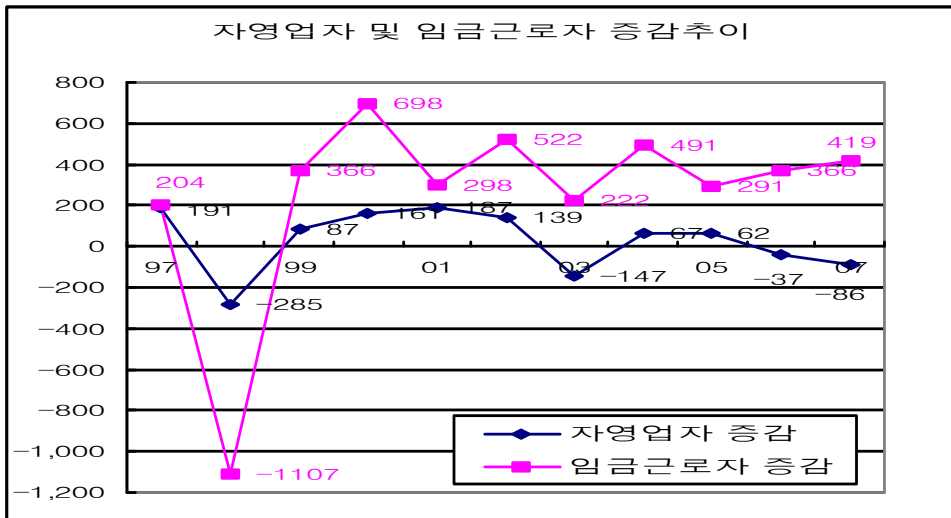
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비중

-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중 자영업자(고용주+자영자)가 차지하는 비중이 25.5%로 전년동월대비 25.9%에 비해 0.4%p 감소하였고, 2007년 현재 자영업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 대비 53.6%로 나타나 하락추세가 지속됨.¹⁾
 -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1990년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285천 명 감소, 2003년 137천 명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2006년부터는 감소추세가 가속화되어 2007년 현재 86천 명 감소함.
 - 자영업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현재 1,377만 원으로, 이는 임금근로자 1인당 2,570만 원의 53.6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우 영세한 저소득층이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(1999년 80.1% → 2003년 59.4% → 2007년 53.6%).
- OECD 주요국의 2005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, 비교대상 국가들 대부분이 10%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²⁾는 33.6%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.
 -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이며,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관광산업 위주임.
 - 일본 14.8%, 스페인 14.4%, 영국 12.7%, 핀란드 11.7% 순으로 나타났으며, 최근 들어 자영업자 비중이 그리스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임.
- 2004년 기준 GDP 대비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³⁾은 스페인이 20.7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미국 16.9%, 프랑스 15.0%, 한국·일본 14.1% 순으로 나타남.
 - 우리나라는 2005년 자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.8%로 나타나 GDP 대비 자영업자 소득비중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. **KLI**

1) 자영업자,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한국은행, 『국민계정』의 개인영업잉여, 피용자보수 정보를 활용함.
 2) OECD, “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” DB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(self-employed)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의미함.
 3) OECD, “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” DB에서 Operating Surplus and Mixed Income과 Gross Domestic Product(Income Approach) 정보를 활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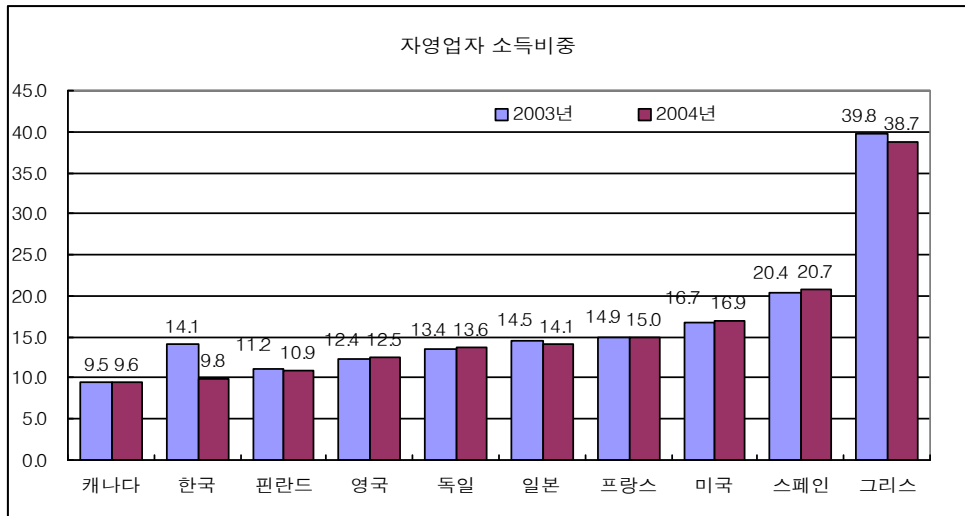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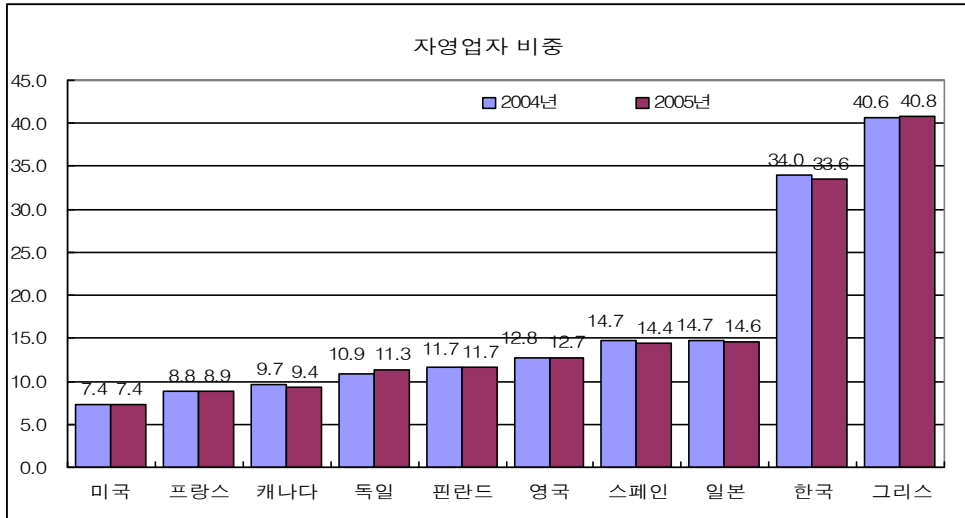
〈우리나라 자영업자 증감 및 자영업자 소득 추이〉

(단위: 천 명, 천 원)



〈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및 자영업자 소득비중〉

(단위 : %)



주 : 자영업자 비중 중 캐나다, 일본, 미국은 2003, 2004년 자료임.
 자영업자 소득비중 중 영국과 한국은 2004년, 2005년 자료임.
 자료 : OECD(2006), "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".